



##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

겨울 도시 여행에 제격인 디자인 호텔

스위스의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

투숙객에게 영감 선사하는 디자인

새롭고 생기로운 하룻밤

호텔 곳곳에서 깜짝 놀래키는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

숙박 그 자체가 디자인 체험

낭만 겨울 여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낭만 숙소가 필요하다. 높은 안목의 디자인, 명확한 형태의 정의, 세심히 선별한 자재가 스위스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명성을 높여준다. 영감 가득한 건축학적 성취가 돋보이는 개성 넘치는 디자인 호텔에서의 휴가는 허니문너는 물론, 스타일을 중시하는 요즘의 여행자 취향에도 부합한다.

예쁘다고 다 디자인 호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 호텔 연합과 함께 테마 호텔 레이블 시스템을 운영한다.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 레이블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 컨셉은 다음과 같다.

### 1. 영감을 선사할 것(Inspiring)

독특한 건축과 명료한 디자인으로 투숙객들에게 스타일과 영감을 선사해야 한다.

### 2. 새로울 것(Refreshing)

라이프스타일은 호텔들에게 핵심적인 요소다. 호텔 안 모퉁이를 돌 때마다 투숙객들을 깜짝 놀랄킬 만한 신선한 컨셉이 있어야 한다.

### 3. 생기로울 것(Vibrant)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여행자들이 로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로, 투숙객들이 여행지를 깊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기능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미적 감각을 발산할 것
2. 건축 및 서비스에 최상급 품질을 도입할 것
3. 디자인 컨셉에 투숙 체험 전반을 포함시킬 것
4. 요리에도 디자인 컨셉 역량을 반영할 것
5.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디자인일 것

### 1. 파크 하얏트 취리히(Park Hyatt Zurich)\*\*\*\*, 취리히(Zürich)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 카테고리에 속하는 파크 하얏트 취리히는 클래식 모던 아트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 르윗(Sol LeWitt), 세르주 폴리야코프(Serge Poliakoff), 잉고 마우러(Ingo Maurer)를 포함한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 92 점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 애호가라면 반드시 한 번 투숙해 보아야 할 정도로, 실망시키지 않을 시티 호텔이다. 파크 하얏트는 그 미술품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클래식 모던 아트에 속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모아 왔는데, 이 작품들은 현대 미술의 큰 부분을 규정짓는



대립되는 스타일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호텔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기반한 아트 컨셉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고 있다. 객실 역시 디자이너 룸으로, 투숙객들에게 특별하고 감각적이며, 예술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 2. 아르 데코 호텔 몬타나 루체른(Art Deco Hotel Montana Luzern)\*\*\*\*s, 루체른(Luzern)

루체른 호숫가 언덕에 위치해 있어 기막힌 파노라마를 선사하는 수페리어 4성급 호텔이다. 아르 데코 양식의 객실과 스위트 룸, 고미요(GaultMilau) 점수 15점에 빛나는 라 스칼라(La Scala) 레스토랑과 루이스 바(Louis Bar)가 있어 특별하다. 2014년 스위스의 일요 신문, 손탁스자이퉁(SonntagsZeitung)이 스위스 최고의 4스타 시티 호텔로 선정할 곳이기도 하다. 2010년 6월에 오픈한 펜트하우스 스파 스위트룸은 이 호텔의 디자인 실력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방 한가운데 자리한 스파 시설과 조명 센서를 달아 특별한 샤워부터 옥탑 파노라마 월풀까지 스파 스위트 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시크한 인테리어, 보드라운 새틴과 벨벳 패브릭, 화려한 패턴과 컬러, 큼직한 객실과 스위트룸에서 그 디자인적 면모에 감탄하게 된다. 루이스 바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는데, 구르메 쿠킹 클래스는 루체른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3. 25 아워스 호텔 취리히 랑슈트라세(25hours Hotel Zurich Langstrasse)\*\*\*\*, 취리히(Zürich)

취리히의 트렌디한 구역에 있는 호텔로, 중앙역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다. 170개의 모던한 객실은 다양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다. 꼭대기 층에서는 루프 테라스가 갖춰진 사우나와 휘트니스도 이용할 수 있다. 취리히 미식가들에게 인기인 바와 레스토랑도 자리해 있다. 디자이너 베르너 아이슬링어(Werner Aisslinger)는 은행가와 흥등가, 예술과 자본주의 사이의 대조에 영감을 받았고, 그 결과로 탄생한 호텔은 자립적인 소우주답다. 끊임없이 뒤섞이는 예술가들이 호텔 스튜디오에 창작의 기운을 꾸준히 불어 넣는다. 심지어 호텔 소유의 전당포에서 예술품을 맡기고 숙박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 4. 래디슨 블루 호텔(Radisson Blu Hotel) \*\*\*\*s, 루체른(Luzern)

2006년에 오픈한 트렌디한 디자이너 시티 호텔로, 비즈니스 출장객은 물론 연인들에게도 인기 좋은 호텔이다. 루체른 기차역과 카카엘(KKL) 옆에 있는데, 루체른 호수의 뷰와 알프스 뷰가 한눈에 들어온다. 화려한 색채의 유리 파사드가 도시를 생기롭게 만들어 준다. 팬톤 체어 같은 디자인 제품으로 곳곳에 감각을 더했다. 넉넉한 공간의 디자이너 룸에는 커피 메이커, 미니바,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다.

## 5. 취리히(Zurich)의 마르크트가세 호텔(Marktgasse Hotel)\*\*\*\*

호텔 마르크트가세는 1425년, 눈에 띄는 붉은 외벽으로 인해 “붉은 집”이라는 뜻의 로트후스(Rothus)로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마르크트가세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은 과거 취리히에서 가장 우아한 건물 중 하나로 꼽혔는데, 취리히 시 정부의 외국 손님들을 모시는 데 사용되었던 곳이다. 2015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4성급 부티크 호텔로, 39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은 모두 다르게 디자인되었다.

600년이나 된 건물에는 역사 어린 요소와 모던한 디자인이 잘 어우러져 있다. 기둥과 프레스코화, 옛 마루가 심플하지만 스타일리쉬한 목재 의자, 차분한 컬러의 텍스타일과 조화를 이룬다. 커스텀 제작한 가구로 장식된 객실이 아름답다. 로비는 거실처럼 느껴지는데, 1층에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은 로컬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